

# 초고령 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 - 기회요소의 활용전략 -

2011. 3. 7 제84호

김경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목 차 〉

### 요약

- I. 잠재적 기회요소로서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
- II. 고령화의 기회요소(1): 사회적 자본으로서 고령인력 활용
- III. 고령화의 기회요소(2): 성장동력으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 요 약

### 고령인구의 증가는 부정적인 문제도 야기하지만 긍정적인 기회요소도 제공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경제성장의 둔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20년 후의 노인세대는 현세대 노인과는 달리 고학력, 전문직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보유한 집단으로, 자원봉사와 일, 배움 등의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충실하며 생산적 활동에 동참하는 신노년 문화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니어파워(Senior Power)의 등장은 고령화가 '문제'가 아닌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사회적 자본으로서 고령인력의 활용 가능

미래노인세대가 제공하는 첫 번째 기회요소는 노인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원봉사, 기부와 같은 사회공헌 활동이다. 금전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분야에 고령자들의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이 대체 투입됨으로써 공공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기여를 통해 노인부양 부담을 떠맡는 젊은 세대와의 세대갈등도 완화할 수 있다. 고령자 당사자들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이 증진되고 이는 노인의료비 절약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고령자 개개인의 인적 자원(human capital)을 어떻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만들 것인가이다. 사회운동 차원에서 기부와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조성, 교육과 경험의 축적을 통한 자원개발, 그리고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교육에서부터 사회적 기여에 대한 교육과 경험기회를 제공해야 노년기에 자원화가 가능하다. 사회참여나 봉사는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경제성장동력으로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초고령 사회가 되면 10명 중 2명 이상이 노인소비자로 이들의 수요가 많은 산업, 즉 고령친화산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성장 가능한 고령친화산업은 R&D와 사회서비스 분야이다. 서울은 IT기반 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과 학교, 연구소 등 우수한 자원이 밀집되어 Geron-technology, Elder-technology 등 복지과학기술의 성장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울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특히 문화, 여가, 교육, 금융 분야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복지과학기술을 포함한 고령친화산업은 질병을 예방하고 기능장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성공적 노화에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수요로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들도 아직 고령친화산업의 시장수요를 체감하지 못해 시장진입을 주저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은 고령친화산업을 '산업'이 아니라 '복지', '봉사'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한 수요창출, 기업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예산 지원을 통한 R&D 투자와 사업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

## I. 잠재적 기회요소로서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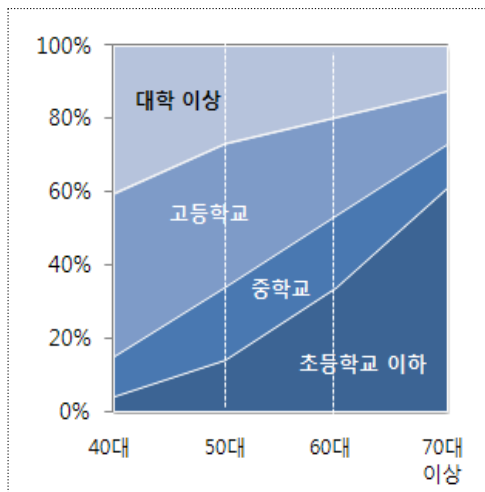
서울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는 2027년, 고령인구의 중심은 베이비붐 세대

-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이 도입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서울시민의 14.4%인 약 145만명
  - 이들은 2011년 현재 만 48~56세 집단으로 10년 이내에 고령자층으로 편입 시작
    -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약 20년 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고령자층으로 편입되어 이들이 전체 고령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
- 미래노인을 대표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성, 가치, 욕구를 가진 새로운 노인세대
  -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후 출산붐을 타고 태어나 산업화와 민주화, 외환위기 등을 경험한 현대사회의 주역
    - 전통과 혁신의 양면적 가치를 보유하고,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을 가진 낀 세대
    - 그러나 한국전쟁 후 높은 교육열로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고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참여하며 고도성장의 혜택도 경험

초고령 사회의 고령인구는 현재 노인과는 다른 특성과 가치를 가진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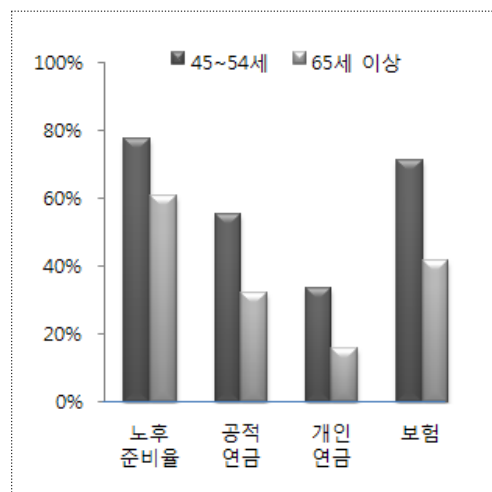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로 대변되는 미래노인은 현재 노인보다 고학력, 전문직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 보유

- 현재 노인세대인 60대, 70대 이상 중 대졸 이상은 각각 19.4%, 12.3%인 반면, 미래 노인세대인 40대는 40.3%가 대졸 이상(2005 인구주택총조사)
- 베이비부머의 26.1%가 전문직에 종사하여 현세대 노인의 전문직 종사비율 13.9%의 약 2배(2009 서울서베이)
- 스스로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적극적
  - 현세대 노인의 노후준비율은 60.7%, 베이비부머는 77.8%
  -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입률이 높아 현금성 수입원이 많고, 보험가입률도 높아 위험 상황에도 스스로 대비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1] 연령별 교육수준(2005, 서울)



자료: 서울특별시, 2009 서울서베이

[그림 2] 연령별 노후준비도

#### □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미래 노인세대의 생활양식

-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적 생활을 선호
  - 미래 노인세대(45~54세)는 노후에 자녀로부터 부양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11%로 현세대 노인(28.1%)보다 낮고, 건강이 악화되어도 자녀와 동거하기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

- 노후생활은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고(50.2%), 본인의 자산은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가치도 증가(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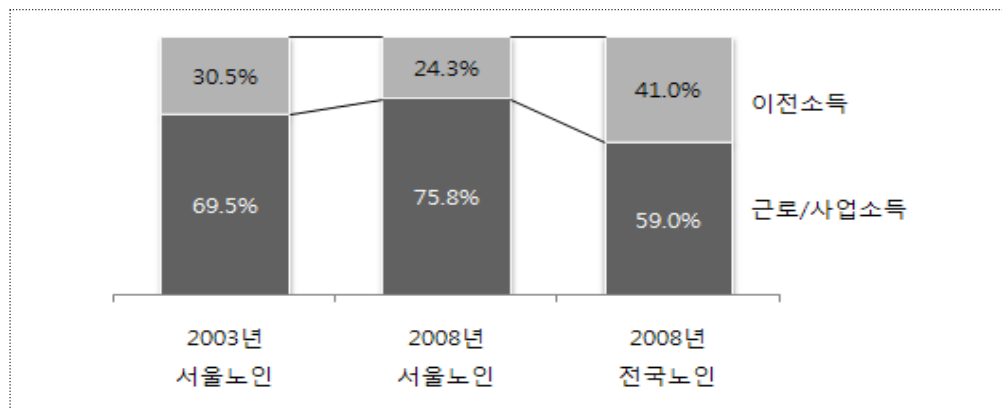
<표 1> 연령집단별 노후생활에 대한 가치

(단위: %)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노후 자녀부양 희망		11.0	18.6	28.1
건강약화시 희망동거인	혼자 또는 배우자	57.3	55.9	52.1
	자녀	8.4	13.9	20.6
	요양시설, 병원	21.7	19.7	21.3
노후생활 책임자	본인 스스로	50.2	44.4	41.9
	국가	21.2	22.0	24.3
	자녀	1.6	2.0	2.6
	가족+국가	26.9	31.2	30.3
자산상속	자녀상속	58.2	59.0	63.7
	자녀상속 + 사회기부	14.6	12.9	9.4
	생전에 모두 소비	27.2	27.8	26.2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초고령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 소득구성도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높고 이전소득 비중은 낮은 생산적인 인구집단
- 2008년 서울노인의 이전소득 구성비는 24.3%로 2003년 30.5%보다 감소하였고, 전국노인 평균 41%의 6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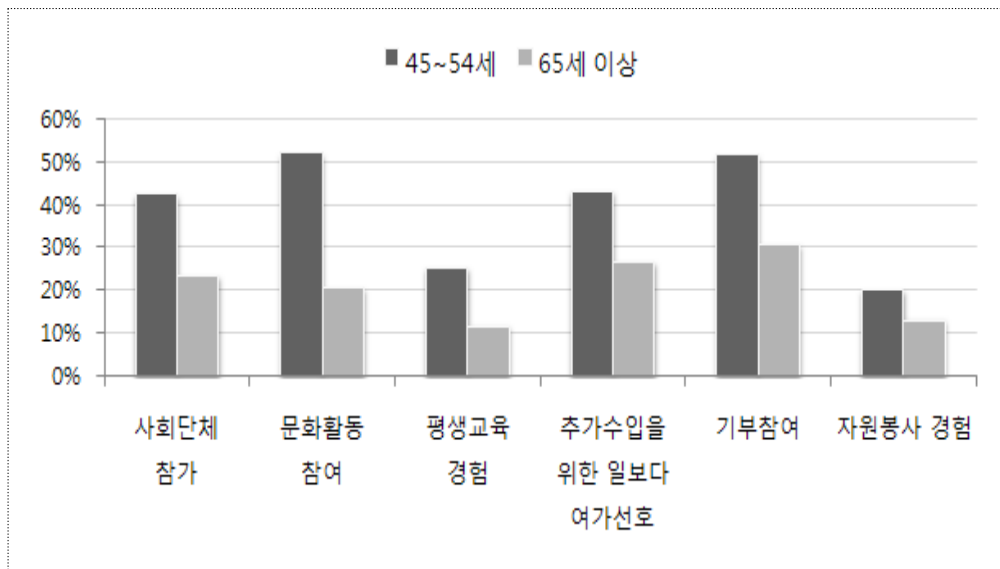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3, 2008, 가계동향조사

[그림 3] 고령자 가구 소득구성

□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적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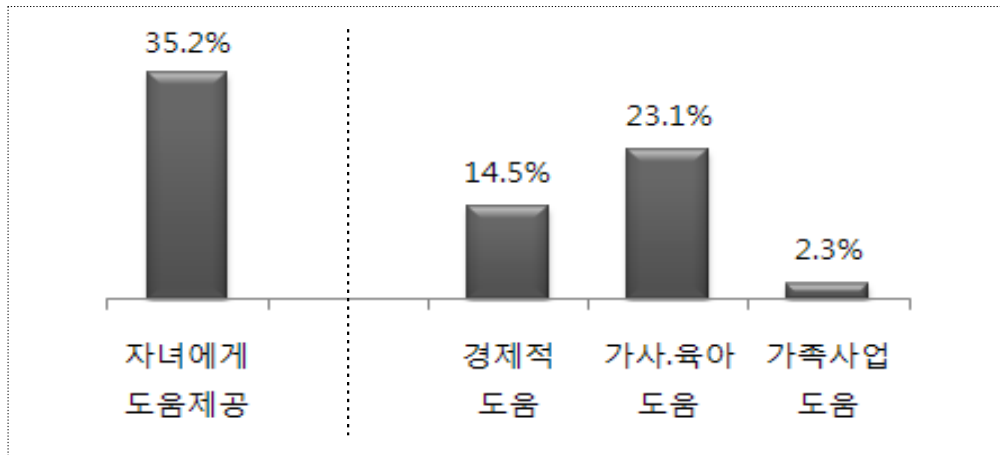
- 미래노인세대는 현세대 노인보다 사회단체, 문화활동, 평생교육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일보다 여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이직이 가능하다는 가치관을 보유
- 기부, 자원봉사 참여 등 사회공헌 활동도 미래 노인세대에서 점차 증가



자료: 통계청, 2009 사회조사; 서울특별시, 2009 서울서베이

[그림 4] 사회활동 참여

- 노인세대는 부양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자녀세대에게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도 제공
- 은퇴자 대상 조사에서 35.2%가 어떠한 형태로든 여전히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
- 14.5%가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23.1%는 가사나 육아 등 노동력을 제공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초고령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그림 5] 은퇴자의 자녀에게 도움제공 실태(중복응답)

##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은 초고령 사회 서울의 기회요소로 작용 가능

□ 고령인구 증가로 부정적인 문제도 나타나지만, 긍정적인 기회요소도 존재

-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 필요
  - 첫째,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 전략
  - 둘째, 고령화에 따른 기회요소의 활용전략

### 인구구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

-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저축과 투자의 위축으로 경제성장 둔화 예상
  - 한국개발연구원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 4.82%에서 2030년 2.25%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
- 노인빈곤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증가 예상
  - 201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6.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에는 생산인구 2.6명당 노인 1명을 부양
  - 한국개발연구원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2030년 서울시 노인복지 예산은 2010년 대비 약 2.3배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

※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전략은 SDI 정책리포트 제80호(2011.1.10) 「초고령 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1):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전략」 참조

□ 초고령 사회에 시니어파워(senior power)의 등장은 두 가지 기회요소를 제공

- 첫째, 사회적 자본으로서 고령인구의 활용
  - 미래의 노인은 높은 교육수준과 정보접근의 용이성, 사회활동참여 증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 향상된 인구집단으로 변모
  - 자원봉사, 일, 배움 등의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충실하며 생산적 활동에 동참하는 노인세대의 특성이 신노년 문화로 등장
  - 새로운 노인세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피부양 집단이 아니라 기부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물질적, 비물질적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 가능
- 둘째, 성장 동력으로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 초고령 사회가 되면 10명 중 2명이 노인소비자로 이들의 소비패턴이 전체 산업구조에 영향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력을 보유하고 적극적인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보유한 미래 노인세대가 새로운 소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고령자의 수요가 많은 산업, 즉 고령친화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 가능



## II. 고령화의 기회요소(1) : 사회적 자본으로서 고령인력 활용

### 활동적 노화(Active aging)가 고령화 정책의 세계적 트렌드

- 활동적 노화는 모든 시민이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2009)에서 노인의 사회·문화·정치적 기여와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인 참여 보장을 권고
  - 중앙정부의 새로마지플랜(2010)에서도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해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안
- '문제'가 아닌 '기회'로서의 고령화 논의 부각
  - 노인인구의 증가를 지역사회 발전의 기회, 즉 황금기로 보는 시각(prime time perspective) 강조
  - 노인이 가진 자원과 능력에 주목하여 노인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인식

### 고령자 인적 자원(human capital)의 사회적 자원화(social capital)를 위한 과제

- 사회운동 차원에서 기부와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이 필요
-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지칭

- 사회운동 차원에서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
- 사회지도층의 화장서약운동이 화장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과 같이 '자산 기부서약운동'과 같은 사회운동 전개도 효과적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추진하는 신노년문화 운동 『시니어 코리아』**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신노인상 정립, 노인의 역할 재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신노년문화 운동
- 2009년 1월 19일 시니어코리아 발대식에서 신노인헌장 선포
  1. 우리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노년의 권익증진에 힘쓴다.
  2. 우리는 경륜과 지혜를 가진 어른으로서 가정과 사회에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존경받는 노인이 된다.
  3. 우리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각자에 맞는 최선의 일을 하여 보람을 가지며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4. 우리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며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숭선수범한다.
  5. 우리는 미래에 더욱 행복한 노년사회로 발전하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이끌어낸다.

□ 교육과 경험의 축적을 통한 역량 강화도 중요

- 적극적인 노년기 설계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
  -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제3기 인생설계와 노년기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 대두
  - 외국의 사례로는 영국의 Active at 60 Package, 프랑스의 제3기 인생 대학 등이 이러한 목적의 프로그램
-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 취미·여가 중심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 발전하여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필요
  - 노후설계 교육에서도 재정설계 교육뿐 아니라 사회적 공헌과 방법 등 의미있는 노후설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희망제작소의 행복발전소 주관 『해피시니어 행복설계아카데미』**

- 은퇴준비교육의 차원에서 40-60대의 퇴직예정자 및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 노인을 대상으로 NPO 참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
- 심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NPO 경영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조직운영 전반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교육도 실시

**뉴질랜드의 SeniorNet**

- 노년층이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등의 정보기술능력을 지도
-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100곳의 자치 교육센터 조직

- 보다 근본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교육을 통해 자원화하는 과정이 필요
- 사회참여나 봉사는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젊었을 때부터 교육과 참여기회 제공이 필요
- 평생교육, 여가프로그램, 학교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의 일환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

## □ 노년기에 들어서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지원

-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기본
- 상호관계 속에서 신뢰도 형성되고 제도나 규범도 만들어지며 사회적 기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
- 전통적으로 향약 등 관계형성을 통한 상부상조 문화가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이 용이
- 기존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공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
- 노인들은 은퇴 전 사회활동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

- 주거이동성이 낮은 고령자에게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지역사회(community)와 이웃(neighborhood)을 보존하는 정책이 필요
- 여러 세대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집단이나 다른 세대와의 관계형성 기회도 제공

### 사회적 자본으로의 고령인력 활용시 기대되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

#### □ 금전적 재정투입 절감 효과

- 금전적 자원(financial capital)이 투입되어야 할 분야에 고령자들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대체 투입됨으로써 공공재정 절감 가능
- 특히 노인인력을 활용해 노인문제를 해결한다면 고령화 사회에 가중되는 노인복지예산 절감
-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 고령자를 활용하는 '老老케어'는 일거양득

#### 미국 보스턴의 Beacon Hill Village

- 고령자의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비스 공동체
-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 식료품 쇼핑 등의 단순한 서비스 지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까지 포괄적인 서비스 지원
- 취약한 노인 계층뿐 아니라 lifelong community 조성을 위한 aging in place의 총체적 접근 사례

#### □ 고령인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 효과

- 노년기에 경험하는 문제 중 하나인 역할상실과 소외감 해소
-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 정신건강에 기여

- 사회활동을 통한 활동량 증가는 신체적 건강증진에도 기여
- 노인건강의 증진은 결과적으로 노인의료비 절약으로 연결 가능
- 건강보험공단의 서울노인 의료비 지급액은 2009년 2조 6천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 세대갈등 완화 효과

-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노인부양 부담이 젊은 세대에게 전가되는 문제 발생
- 그러나 고령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요소를 완화하는 효과 기대
- 노인들이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건전한 소비생활과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함으로써 정신적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이러한 활동은 노인을 긍정적 주체로 인식하게 하고, 세대갈등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Ⅲ. 고령화의 기회요소(2) : 성장동력으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초고령 사회에서는 소비자의 20% 이상이 고령자

- 한국개발연구원은 2050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에 의한 소비액이 전체 민간소비의 30%를 넘을 것으로 추정
  - 고령층의 수요가 많은 의료·건강, 여가·레저, 사회서비스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
  - 그러나 고령층의 구매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
    -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금융자산의 75%, 미국은 50세 이상이 전체 금융자산의 77%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전체의 20%에 불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비자의 20% 이상이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가 되면 이들의 소비패턴이 전체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이 일반적
- 안정된 경제력과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갖춘 새로운 노인세대는 뉴마켓의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상
  - 미래의 노인소비자는 현재 세대보다 적극적·개방적이며, 취미나 레저생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특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

&lt;표 2&gt; 예비고령자의 특성변화 전망

구 분	현재 고령자	예비 고령자
인 식	• 인생의 황혼기	• 자기실현의 기회, 제3의 인생
태 도	• 검약, 소박, 무취미	• 여유, 즐길, 다양한 취미
노후설계	• 자녀세대에 의존	• 계획적인 준비, 독립성 유지
레저생활	• 여가는 수단	• 여가 자체에 의미 부여
자산처분	• 자손에게 상속	• 자기를 위해 사용
생 활	• 한국전통식 생활	• 타문화 교류적 생활

자료 : 산업자원부, 2005,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의 소비심리를 3F(Fun, Family, Future)로 규정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패턴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

&lt;표 3&gt; 일본 단카이세대의 소비심리

Fun	여행, 골프, 자동차, 홈시어터, 레저, 식도락, 패션
Family	재건축, 인테리어, 전원주택, 별장, 애완동물
Future	웰빙, 자산운용, 컴퓨터와 어학 등 평생교육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07,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과 시사점」

## 서울의 고령친화산업 발전 가능성

- 정부는 2005년 고령친화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원
-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이라고 정의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14대 부문 34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요양서비스 및 실버용품, 건강관련 제품 정도가 제공되고 있는 수준

<표 4> 고령친화산업 부문 및 전략품목

부문	주요 품목
1차 (8대 산업 19개 품목)	요양 재가요양서비스
	기기 재택·원격 진단, 진료,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 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 및 실내외 이동지원 시스템
	정보 홈케어, 정보통신 보조기기, 노인용 콘텐츠 개발
	여가 고령친화 휴양단지
	금융 역모기지 연금, 자산관리서비스
	주택 고령자용 주택개조, 실비 고령자용 임대주택
	한방 한방보건관광, 향노화 한방 기능성 식품, 노인용 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 한약재 개발
	농업 고령친화 귀농교육, 전원형 고령친화 농업데마타운, 은퇴농장
2차 (6대 산업 15개 품목)	교통 저상버스,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신경계용 약, 순환계용 약, 대사성 의약품
	장묘 화장 및 납골용품, 웰다잉 준비 및 체험교실, 개장 및 이장서비스
	의류 건강보조 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 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용 이너웨어
	교육 일자리 교육 및 훈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II)」

- 고령친화산업은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 약 31조원, 2020년 약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고용창출 효과도 커서 2010년 41만명, 2020년에는 66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 서울은 상대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편

- 서울은 세계최고의 IT기반 기술을 포함하여 우수한 산업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학교와 연구소 등 우수한 인적 자원과 민간자원이 밀집
  - 서울에서 성장 가능한 산업분야는 R&D 개발과 사회서비스 분야



-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Geron-technology, Elder-technology 등 복지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
- 복지과학기술은 성공적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

#### 복지과학기술 분야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기술, 신체기능의 저하나 손상부분을 대체·보완하는 보조기술(assistive tech), 노화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기능향상을 돕는 지원기술(supportive tech), 교통, 통신, 건축환경 등 공공기술(public-tech) 등 시스템과 하드웨어 제품, 서비스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

- 서울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특히 문화, 여가, 교육, 금융 분야 등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서울시는 '어르신 998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령자들의 이용이 많은 종로일대를 노인문화거리로 만드는 '실버문화벨트' 사업을 추진
- 고령자들의 노후설계와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금융상품, 재취업이나 취미생활을 위한 평생교육사업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은 수요발굴과 공급자 지원

-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 필요
- 복지과학기술을 포함한 고령친화 상품과 서비스는 성공적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자원
- 서구에서는 이미 과학기술을 통해 노령기의 질병과 기능장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자료들을 발표
- 그러나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의 실용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수요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향

- 지자체 차원에서 구청,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을 활용하여 고령친화 상품을 홍보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수요를 발굴
  - 고령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 실버산업 종합체험관을 건립하는 것도 필요
  - 현재 부산, 광주, 성남에서 실버상품 체험관을 이미 운영 중
- 또 다른 수요 발굴 방법으로 서울시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도 가능
  - 장애인 보장구를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친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과 전달도 지방정부의 역할
  - 노인복지시설을 거점으로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일차적으로 홍보효과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고령친화제품의 공급자에 대한 지원도 서울시의 역할

- 예산 지원을 통한 R&D 투자, 사업 아이템 발굴이 필요
  -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은 아직 초기단계로 기술개발 수준이 초보적이고 기업도 영세
  - 현재 국내 고령친화관련 제품시장의 70% 이상을 외국 수입품이 점유
- 기업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중요
  - 기업들은 아직 고령친화산업의 시장수요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진입을 주저
  - 특히 대기업은 고령친화산업을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복지', '봉사'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

- 고령친화산업을 독립된 '산업'영역이라기보다 '실버상품'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접근
- 고령친화산업은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산업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산업자체의 정체성이 모호
-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지자체 사례**

• 부산시

- 기기산업, 정보산업, 한방산업 3대 부문을 부산시 역점 추진사업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 IT 융합 전통복지기기 실용화 사업과 한방실버웰니스 건강기기 및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지역클러스터 구축도 시도

• 충청남도

- 고령친화산업의 지역발전모델로 '건강도시', 'Silver Tour', 'Silver Wellbeing', 'Silver Care' 4개 모델을 제시
- 고령친화 기능성 식품 및 노인 복지기기 개발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계획

김경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2-2149-1253

khkim@sdi.re.kr